



pdf

유형

공부

김태윤은 서울에 사는 34살 남자이다

김태윤은 못생겼다

김태윤은 불량감자를 닮았다

김태윤은 일반인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

김태윤의 축구 포지션은 수비수이다

김태윤은 타투가 많다

김태윤은 남자를 좋아한다(게이)

김태윤은 똥똥하다

박지성(1981년 2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은퇴한 프로 축구 선수로 현역 시절 포지션은 윙어, 미드필더이다. 한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 현재 전북 현대 모터스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트로피 19개를 획득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최초의 아시아 축구 선수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2명의 아시아 축구 선수(박지성, 손흥민) 중 한 명이자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최초의 아시아인 선수이다. 그는 뛰어난 체력과 훈련, 프로 의식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지구력으로 인해 "폐 3개 가진 박(Three-Lungs Park)"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한 그는 명지대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했으며, 200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 퍼플 상가에서 활동하며 프로 선수 경력을 시작했다. 그 후 2003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가 네덜란드로 돌아와 감독을 맡은 팀인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하여 유럽 리그로 진출을 했다. PSV가 2004-05년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에게 인정을 받아 2005년 7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맺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 우승했으며, 2007-08년 UEFA 챔피언스리그, 2008년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후 주전 출전 횟수가 감소하자 2012년 7월 퀸스 파크 레인저스 FC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적 시즌에 자

신의 부상과 소속팀의 강등으로 인해 2013-14 시즌에 임대 형식으로 PSV 에인트호번에 합류했다. 이후 2014년에 PSV에서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여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하여 13골을 넣었다. 그는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4위를 한 대한민국팀의 일원이었으며, 2006년 FIFA 월드컵과 2010년 FIFA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는 월드컵에서 맨 오브 더 매치(팬투표)에 3회 선정되었으며, 손흥민, 안정환과 함께 3골(14경기)로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자이다. 현재는 국제축구평의회 자문위원, 전북 현대 모터스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노경대는 합천에 사는 80살 남자이다

노경대는 못생겼다

노경대는 김제동을 닮았다

노경대는 일반인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를 못하는 편이다

노경대의 축구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노경대는 타투가 없다

노경대는 남자를 좋아한다

노경대는 키가 크다

설기현은 순창 설씨 65대손이다.[2]

설기현의 축구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어나 성덕초등학교, 주문진중학교, 강릉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광운대학교에 입학하여 로열 앤트워프 FC에 입단 중인 2001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3] 큰 키에 피부가 검고 돌파가 뛰어나다는 것 히바우도 닮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바우두'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확한 크로스와 돌파, 날카로운 중거리슛을 선보이며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 저격수를 뜻하는 '스나이퍼(Sniper)'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